

생태훼손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만 있나 개인에게도 있나, 모튼과 네일의 차이: 성찰과 참여, 인류윤리학과 지구정치학의 종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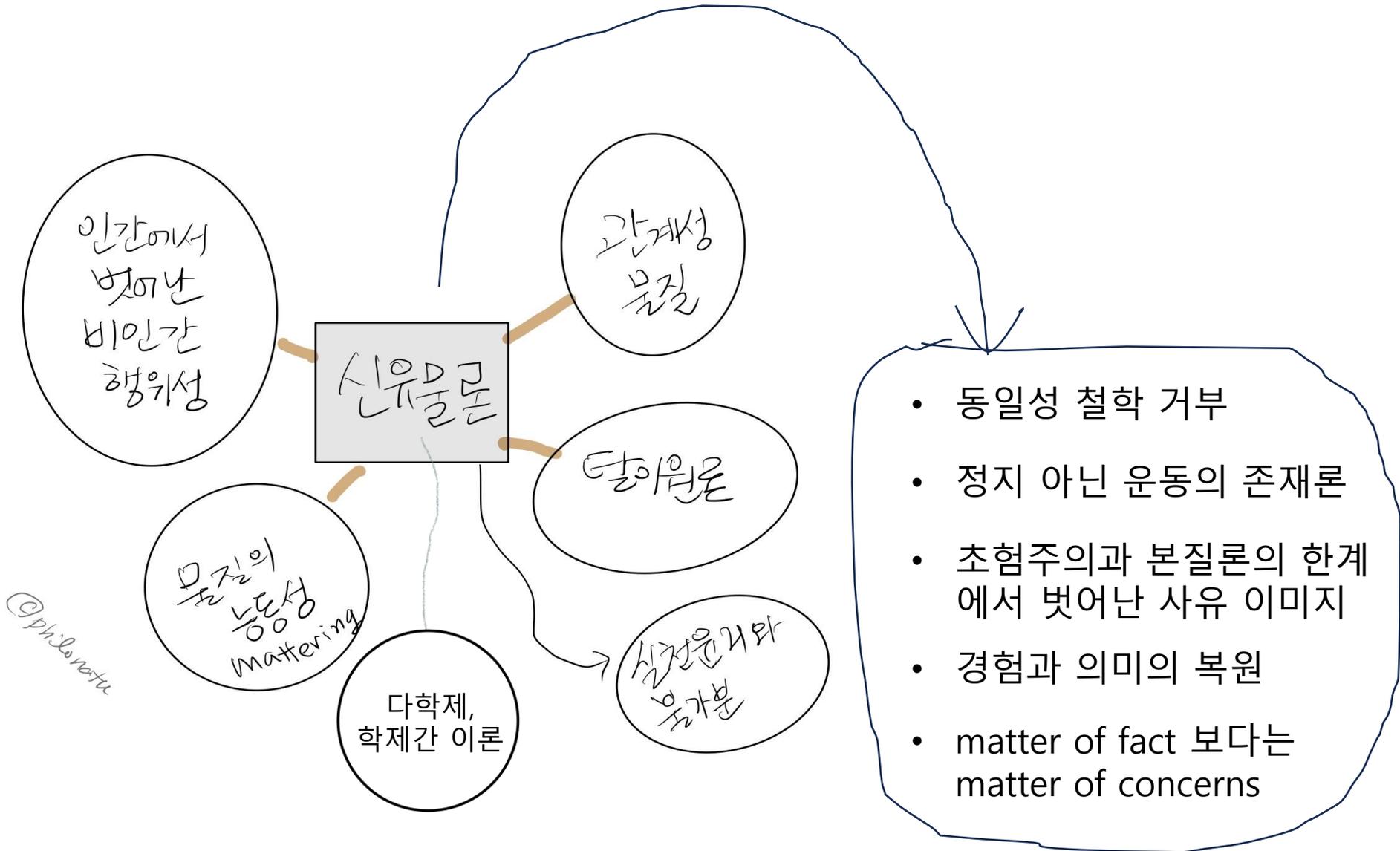
- 네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생태적 훼손에 대한 책임이 거대 기업에게 있다고 논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은 자기 파괴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생태적 비상사태에 대한 '윤리적' 응답을 우선으로 본다.
- 모튼: 많은 환경론자들과 일부 무정부주의자들이 보기에 미국의 주요회사 엑손 모빌이 수십억 배럴의 기름을 퍼 올리는 이유를 두고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비난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생태학적 비상사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적 응답을 우선으로 본다."(하이퍼객체, 323) 개체들마다의 생태학적 각성을 무시하거나 침묵하는 일은 우선

Thomas

Nail 2부: 운동정치학kinopolitics

- 000 혹은 모튼과 차이
- 마르크스의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 다시 읽기
- 모바일 운동학
- 이주하는 객체, 이주민

신유물론 일반을 다시 상기



객체지향존재론, 하먼 Graham harman,
하이퍼객체, 모튼 T.Morton

네일 Thomas Nail

- 객체의 '물러섬'을 통해 객체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 객체 혹은 하이퍼객체: 객체간 관계 이전에 객체 자체를 주목한다
- 관계가 객체를 소진시킬 수(도) 있다.

- 운동과 흐름을 통해 모든 것의 관계성과 과정성을 강조한다
- 관계가 객체를 생성한다.
- 관계가 우선이지만 관계가 객체 안에 이미 들어있다.
- 객체를 소진시키지 않는 관계, 그것이 운동이다.

관계적 존재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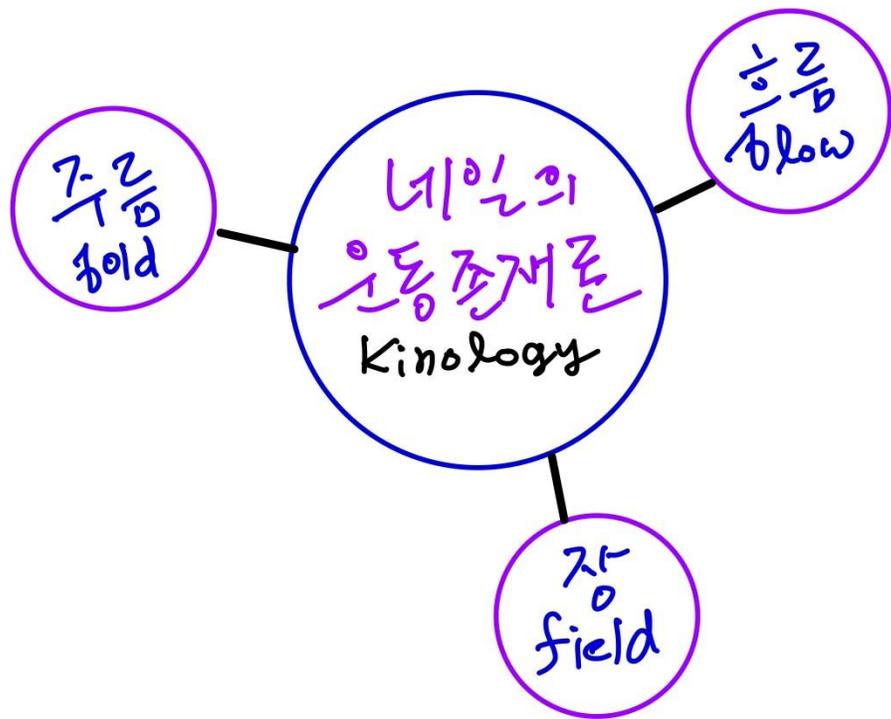
-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고 배치하는 역동적인 과정
- 물체의 움직임은 그 물체 안에 이미 들어있는 본질적인 특성
- 관계는 사물이나 우리의 인식보다 더 근원적이고 독립적인 존재
- 관계는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배치하는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힘

관계적 존재론2

- 객체는 그것이 다른 객체들과 맺은 모든 관계의 집합이다. 이런 관계론적 존재론에서 대표적인 것이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이다. 객체는 자신이 행하는 것 혹은 분포된 관계를 통해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객체는 관계존재의 네트워크 결절점node이다.
- 객체들 사이의 위계는 없다. 관계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 객체는 다른 더 넓은 네트워크에 의해 분화된다. 객체들은 생성소멸하지만 네트워크 패턴들 자체는 그렇지 않다.

과정 물질론 - 물질의 능동성

- 네일은 우리의 "기술"(description 기술, 설명)이 객체의 실재로부터 물러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정 중에 있는 물질의 실재적으로 실천적이고 수행적인 구성"한다.
- 우리의 인지적/실천적 활동이 물질의 역동적인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 물질화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일부가 된다.
- 객체는 우리에게서 '물러서 있음'withdrawal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 속에서 '구성'되고 '드러난다' - OOO, 혹은 머튼과 다른 점



“ 움직임은 비결정적으로 흐르고,
 주안점 객체로 접혀
 허전 (반반) 하여
 다른 객체들과
 더불어 장으로 흠어진다.”

(네일 2024, 36)

- 예시)
- 바니쉬의 범주론
 - 스타일계의 순서구조론
 - K. 버나드의 양자장론

네일의 객체 : 혼종성, 방행, 되먹임

1. 객체는 고정적이거나 실체적 사물thing이 아니라 운동하는 과정process이다.
2. 객체의 존재는 외부력이 아니라 내부에 작용되는 장력에서 비롯된다. 내부의 장력으로부터 객체 자신이 운동하고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하게 만든다.
3. 객체는 물질적이지만 또한 대양의 파도처럼 변성의 물질 안에서 창발하고 지속하며 흠어진다.(네일 2024, 46)
4. 물질은 언제나 운동-중인-물질이다.
5. 객체는 양과 질의 두 가지 차원을 갖는다.

그린비 크리틱컬 컬렉션 02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자연철학의 차이

맑스 박사 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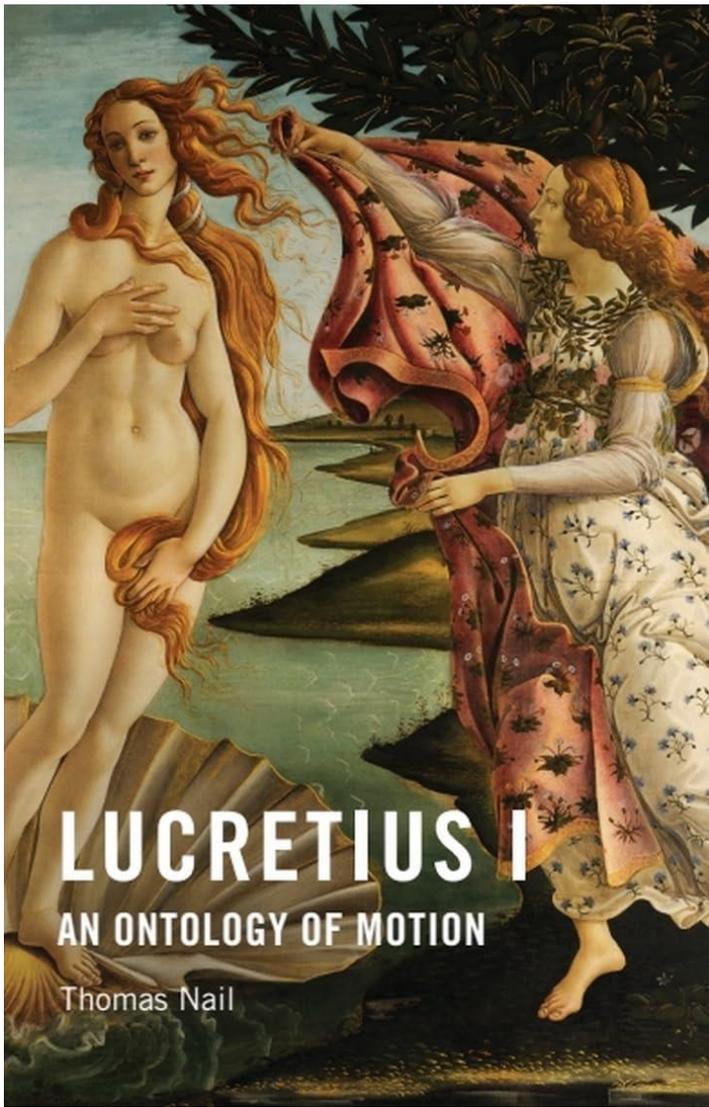
칼 맑스 지음 | 고병권 옮김

Mar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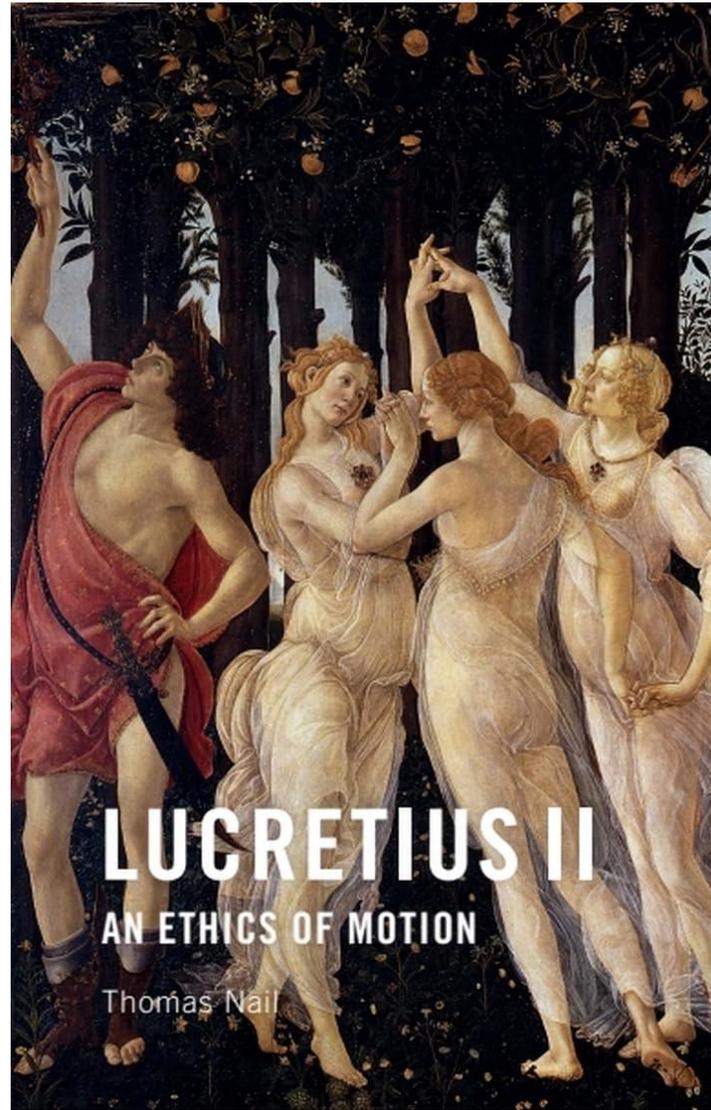
네일이 본 에피쿠로스

- 에피쿠로스에서 낙하하는 원자는 예측불가, 우연적, 자율적인 클리나멘 clinamen 운동
- 에피쿠로스는 원자운동을 "이동"으로 보았지, 운동 자체가 존재의 근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운동을 존재에 종속시킨 결과다. 운동은 그 자체가 시작이자 끝이며, 존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흐름이다.
- 에피쿠로스에게 원자들은 '공허(void)' 속 운동이다. '공허'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정지된 '공간'이나 '배경' 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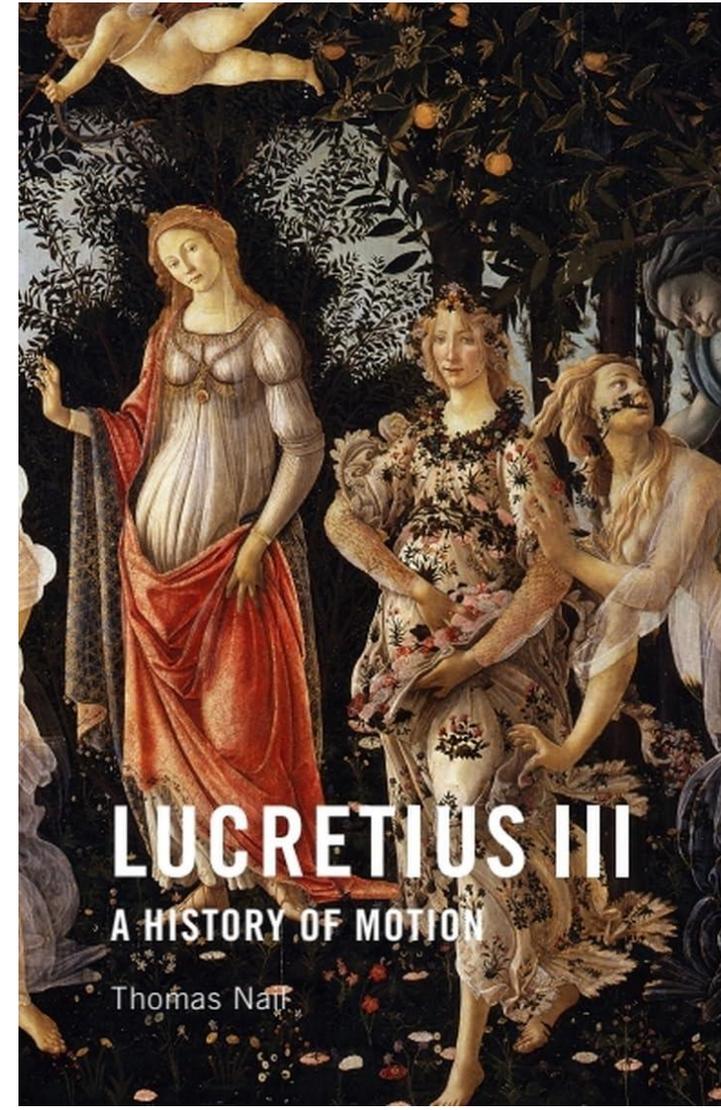
- 네일 운동 존재론: 정지된 배경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
- 네일 운동론: 모든 것이 운동하며, 심지어 '공간'조차도 운동의 한 형태이거나 운동에 의해 구성



2018, 1권 288쪽



2020, 2권 240쪽



2022, 3권 232쪽

네일이 본 루크레티우스

- 물질 운동에서 외부의 초월적 작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물질의 불확정성 운동은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를 생성한다.
- 물질이 A에서 B로의 위치이동한 것을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물질의 A상태와 B상태를 생성하는 과정이 곧 운동이다.
- 베르그송은 '생명의 약동(élan vital)'을 , 스피노자는 '코나투스(conatus)'는 생 이론적 유물론의 특징을 가지지만, 루크레티우스에게 물질은 어떤 외적 원인도, 내재적인 생명력, 에너지, 또는 동력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운동한다는 점이다. 루크레티우스에서 자연이란 운동성 그 자체이다.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고
원자의 포켓형 운동 (clinamen)
으로 표현된 물질성이다.

unmoved mover 처럼
운동을 일으키는
외부 자극은
없다

스스로
운동한다

루크레티우스

네이일의 운동장 이론

(동일이 아닌 바늘 처럼)
기계적 원자가
아니다

운동의 목적은
없다.

네이일은
마르코스 유물론을
루크레티우스
시선으로 해석한다.

공허는
원자가
운동하는
배경의
반응이
아니다.

세계는
원자와 공허로
구성된 지면
공허와 원자는
반대되어 있지만
연속적이다

결정된
운동 방향은
없다.

네일의 마르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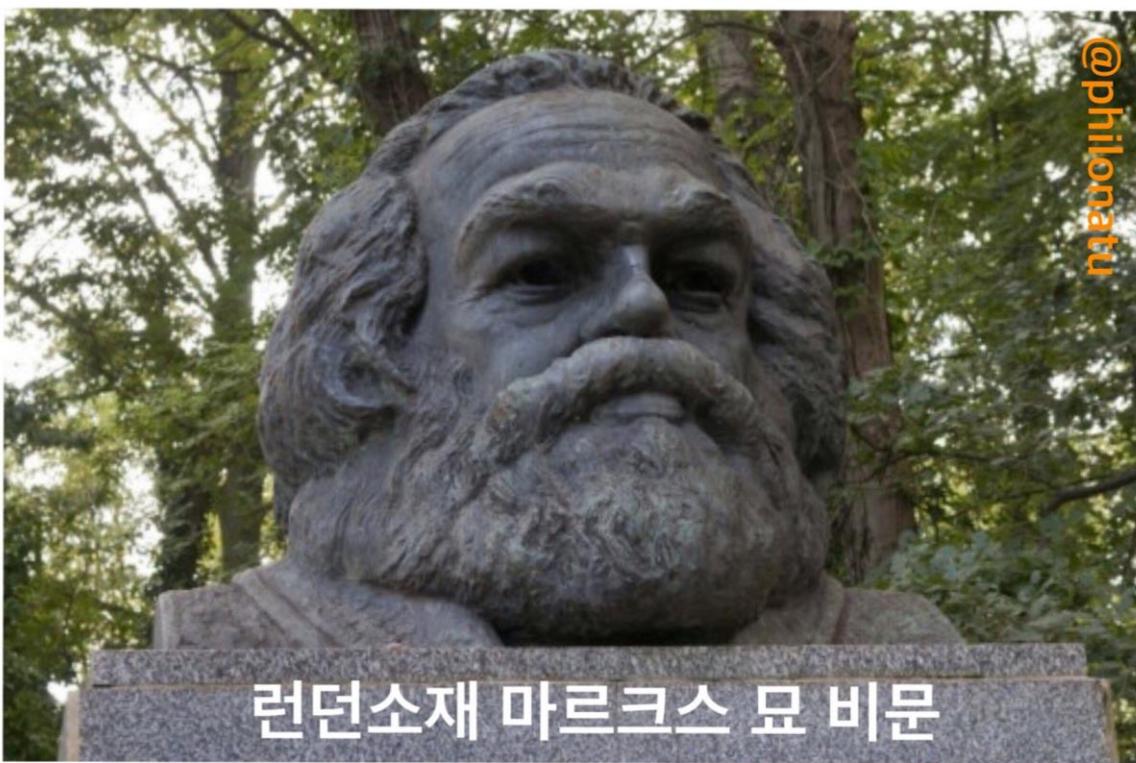
- 라투르는 마르크스를 부정하지만 네일은 역사유물론과 신유물론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마르크스를 해석하던 기존의 방식 1)역사결정론 2)하부 환원주의 3)인간 중심주의의 3 중심비판점에 대하여 네일은 아래처럼 답변한다.
- 1)물질의 능동성, 2)클리나멘의 자기갱신력 3)환원적 유물론이 아님. 4) 변증법적 역사발전론은 엥겔스의 생각일뿐이다. 5)인간중심주의가 아니며 자연-인간-사회의 3겹 과정이며 수행적 유물론에 속한다.

물질 우선성, 모빌리티 패러다임

-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관점에 깊이 공감
- 운동유물론: 존재는 추상적 혹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의 운동
- 모순과 투쟁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서 마르크스의 역사 이해는 흐름-주름-장이라는 네일의 객체 운동성과 같은 궤도
-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자본을 단순한 축적량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증식하며 운동하는 흐름의 가치로 해석한 네일은 마르크스를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선구자로 평가한다.

모빌리티 패러다임 - kinopolitics

- 정주적 sedentary paradigm에 대비한 운동 중 mobility paradigm
- 이동(이주, 이민), 자본과 상품의 흐름, 정보와 데이터, 기술 이동 등
- 정지된 영토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정치(geo-politics)와 달리, 움직임과 흐름, 이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학
- 존재론(ontology)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한다.



런던소재 마르크스 묘 비문

THE PHILOSOPHERS HAVE ONLY
INTERPRETED THE WORLD IN
VARIOUS WAYS - THE POINT
HOWEVER IS TO CHANGE IT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리저리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마르크스의 실천은 네일의 운동이다.

인간의 노동과 생산 활동은 곧 물질의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이 사회적 존재와 역사를 만들어낸다.

실천 자체가 운동의 한 형태이며, 운동을 통해 존재가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네일은 마르크스의 사유에서 자신의 운동 존재론의 씨앗을 발견.

네일의 박사학위논문 주제 : 사파티스타와 들뢰즈

Returning to Revolution: Deleuze, Guattari and Zapatismo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2015)

1994년 나프타에 저항하며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멕시코 정부에 대한 혁명법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사파티스타는 민중 의지에 맞춰 국가를 불법으로 선언하며,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우리는 무력으로 우리의 해결책을 강제하길 원치 않으며,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게릴라 전쟁식의 고전적인 무장 투쟁을 능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 대립이 아닌 정치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 죽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청하기 위해 싸웁니다."(부사령관 마르코스)

사파티스타 실천운동, 1994

- 빈부 격차와 원주민 공동체 파괴에 대한 저항
- 자치공동체 – 명령하되 복종하기
- 인터넷 적극 활용
- 무력아닌 협상
- 원주민 권리운동이
- 새로운 사회모델
- 다른 세상의 시민운동

- 다중심적 권력 진단

(Multi-centered Diagnostic of Political Power)

- 선구성적 전략

(Prefigurative Strategy)

- 참여적 정치

(Participatory Politics)

- 수평적 네트워크

(Horizontal Networking)

- 들뢰즈/가타리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기관 없는 신체

(Body Without Organs, BwO)

배치 (Assemblage)

네일의 kinocene, kinopolitics

- 인간(Anthropos)이 지구 시스템에 지질학적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지칭하는 인류세(Anthropocene)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여, 실제로는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영향과 책임을 가리고 전가한다고 네일은 비판한다.
- 홀로세Holocene, 인류세를 넘어서 "운동세"kinocene를 제안
- '키노신은 지구상태만이 아니라, 지구정치학 kinopolitics을 제시하는데, 정치와 안정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운동패턴을 중시함으로써 기후자본주의, 소외와 빈곤국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방적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kinocene

- 정의: 세계의 존재원리가 안정성stasis가 아니라 운동motion
-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양의 물질과 에너지가 광범위하게 순환하고 이동하는 시대
- 광물, 식물, 동물 등 엄청난 양의 물질들을 지구 표면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이동시키면서, 화석 연료의 추출과 연소, 농업 생산 증대, 산림 파괴 등이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다양한 물질의 순환을 가속화하는 위기의 시대
- 기후 변화와 같은 거대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온다.

정주성sedentary paradigm에 대비한 mobility paradigm

- '움직임과 모빌리티'로 정의되는 시대
- 이동(이주, 이민), 자본과 상품의 흐름, 정보와 데이터의 이동, 기술이동
- '키노폴리틱스(kinopolitics)' 개념을 통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정치
- 고정 영토와 민족 정체성 기반 전통 정치(geo-politics)에 대항, 움직임과 흐름, 이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학
- 존재론(ontology)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인다.

모든 사람은 잠재적 이주민이다.

- 관광, 출장, 이주노동 모두 이주민의 다양한 모습이다..
- 이주민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위치 A에서 다른 위치 B로 이동하는 지정학적 장소place이동의 존재being가 아니라 변동하는displacement “됨과 생성”becoming의 운동자이다.
- 이주와 이민은 사회와 정치의 근본동력으로 유물론적 운동성의 모습이다.figure of movement, figure of the migrant

Nail 2021, The Philosophy of Movement: An Introduction. (Part II: History)

이주민의 다양한 모습

The figure of the migrant.(2015) Chap.3

- 유목민(Nomads): 문명 생성의 운동으로서 고대인의 이동
- 야만인(Barbarians): 고대 제국(특히 로마 제국)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 정치 질서를 움직인 운동
- 부랑자(Vagrants): 봉건주의와 빈곤을 벗어나려 떠난 사람들의 잠재적 운동
- 프롤레타리아(Proletarians):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에서 고향에서 도시로 이동한 노동 계급의 현실 운동

신기술론
 객체지향론



칸트,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들뢰즈, 맑스

머튼	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체 중심(하이퍼객체) • 생태적 각성 • 행성적 공산주의 (planetary commun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체 운동에 중심 • 다중심성 • kinopoli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칸트,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들뢰즈, 마르크스 • 권위와 규모에 길들여지지 않고 놀기 • 지구온난화나 핵방사능에 침묵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뢰즈, 화이트헤드, 마르크스, 루크레티우스 • 기후자본주의, 소외와 빈곤 국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방적 운동

맑스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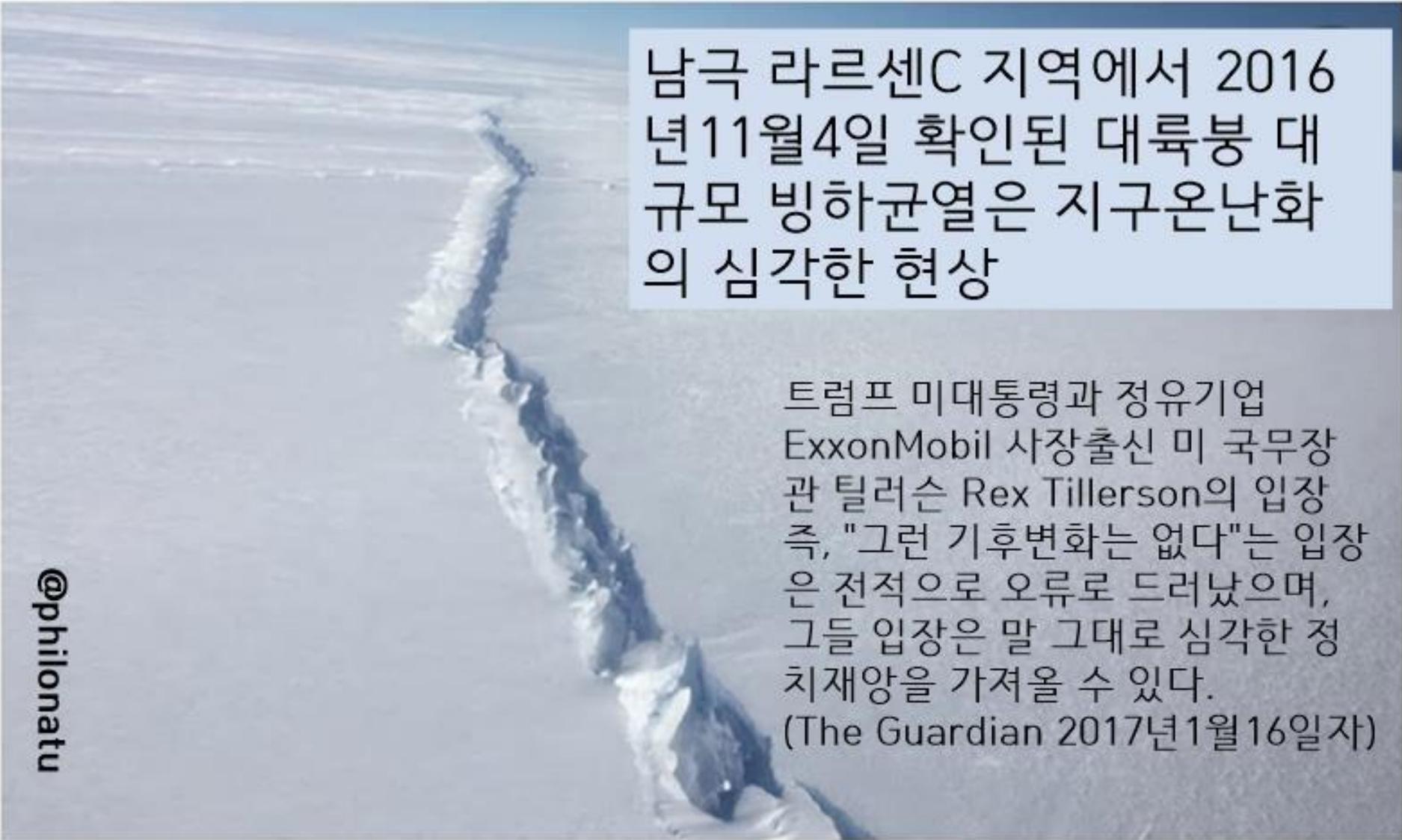
모든의 답변은 (4)이다.

(Morton 2017, 28-9)

- 1) 강한 MATT: 맑스가 이미 그것을 생각했어. Marx Already Thought of That=MATT
- 2) 약한 MATT: 맑스가 빠뜨린 게 있고 그것에 힌트를 줄 필요가 있다
- 3) FANNI: 인간중심주의의 특징은 우연적이지 않다. the Feature of Anthropocentrism Is Not Incidental)
- 4) ABBI: 인간중심주의는 우연한 버그이다. Anthropocentrism Is a Bug That's Incidental

참조: 최종덕의 신유물론 일반강의 동영상입니다.

1. [들뢰즈에서 라투르까지;미분법과 리만기하학](https://youtu.be/J8OF-Pofc7U?si=F5PtiYQvHxJy1EFY) <https://youtu.be/J8OF-Pofc7U?si=F5PtiYQvHxJy1EFY>
2. [해러웨이 신유물론의 생물학적 기초](https://youtu.be/Ls00WVR4egs?si=a8ac0mz6Y_vxzq-v) https://youtu.be/Ls00WVR4egs?si=a8ac0mz6Y_vxzq-v
3. [involution, 해러웨이와 들뢰즈 차이](https://youtu.be/gvH_pBoOUNA?si=PXOn0Ao5HaVwyD6Q) https://youtu.be/gvH_pBoOUNA?si=PXOn0Ao5HaVwyD6Q
4. [해러웨이, 기존 영장류학 비판](https://youtu.be/VUqWI_Bubfc?si=zntBflcy1eC7Yc) https://youtu.be/VUqWI_Bubfc?si=zntBflcy1eC7Yc
5. [캐런 버라드, 양자역학으로 본 얽힘과 결풀림](https://youtu.be/C4Dli8ieqQA?si=9yCggnI8HH38ILP) <https://youtu.be/C4Dli8ieqQA?si=9yCggnI8HH38ILP>
6. [버라드의 무nothingness와 생성](https://youtu.be/8a3CvfDPNtU?si=jdfEnk3TA_d6qF-h) https://youtu.be/8a3CvfDPNtU?si=jdfEnk3TA_d6qF-h
7. [신유물론으로 읽는 화이트헤드](https://youtu.be/TwpaCKuMSQ?si=xf6wuQgBxDBv-aGf) <https://youtu.be/TwpaCKuMSQ?si=xf6wuQgBxDBv-aGf>
8. [티모시 모튼, 하이퍼객체와 저주체](https://youtu.be/Wc20Z3taEto?si=3PSmKhbHwldmY4un) <https://youtu.be/Wc20Z3taEto?si=3PSmKhbHwldmY4un>
9. [토마스 네일의 운동철학, 그리고 신유물론 시리즈 전체 리뷰](https://youtu.be/b0hjtaGhYzY?si=Rzc3TJ97-1PqNzaC) <https://youtu.be/b0hjtaGhYzY?si=Rzc3TJ97-1PqNzaC>



남극 라르센C 지역에서 2016
년11월4일 확인된 대륙붕 대
규모 빙하균열은 지구온난화
의 심각한 현상

트럼프 미대통령과 정유기업
ExxonMobil 사장출신 미 국무장
관 틸러슨 Rex Tillerson의 입장
즉, "그런 기후변화는 없다"는 입장
은 전적으로 오류로 드러났으며,
그들 입장은 말 그대로 심각한 정
치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The Guardian 2017년1월16일자)

@philonatu

i A crack in Antarctic Larsen C Ice Shelf, as seen during IceBridge's "Pine Island 5" mission on Nov. 4, 2016. Ice is rapidly destabilizing near both of Earth's poles, and poses threats of rapid large-scale sea level rise. Photograph: Nathan Kurtz/IceBridge/NASA

